

회개의 선포자 침례자 요한(누가복음 강해 7)

성경말씀: 눅3:1-14

지난 주: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런 분은 없었다. 이유: 아버지의 일을 이루며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유일한 방법, 지혜), 그것을 위해 처녀 탄생의 기적이 필요하였다.

배경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탄생,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천사들과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 동방의 지혜자들이 다 필요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먼저 달려가 길을 예비할 전령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이 전령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다. 침례자 요한 우리도 그분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한다. 결국 주님에게 불명예를 안긴다. 이것을 피하려면 본보기를 잘 따라야 한다. 그 본보기 중의 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다.

<회개의 선포자 침례자 요한>, 그의 사역의 준비와 사역의 핵심인 회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침례자 요한의 준비 과정

눅1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성전 봉사, 천사, 천사의 말(1:15-17)

1. 주 앞에서 큰 자, 2. 나사르 사람(민6:1-21): 삼손 등, 3.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말4:5-6)

드디어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BC 4년경 4월에 침례자 요한이 출생함(1:57-66):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함(66)

사가랴의 대언: 메시아 왕국(68-75), 회개의 사역자(76-77), 주 예수 그리스도(78-79)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유대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냄(80). 아마 10세 이후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광야: 예수님 40일, 바울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 아라비아 광야, 모세는 40년, 요한 20여 년 물리적인 광야도 중요하지만 광야의 원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면서 뼈를 깎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필요함.

와신상담: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왕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월나라의 왕 구천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였고, 그에게 패배한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다. 세상일도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하나님의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늘 신학원 학생, 신입생, 성경 연구를 위해, 인격 함양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상 공부 이상으로 하며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 신학원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영이 강하게 될 때까지(80)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좋은 일꾼은 그냥 되지 않는다. 책상에 앉아야 한다. 그것이 광야이다.

드디어 때가 왔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때가 왔다.

1-2절: 티베리우스 시대, ... 여러 유명한 자들이 언급됨.

4분 영주: 원래는 한 왕국을 넷으로 쪼개어 4분의 1을 다스리던 왕, 그 이후에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 헤롯 대제의 사후에 시리아는 4조각으로 나뉘어서 4명(빌라도,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루사니아)이 다스림. 이두래: 가이사라 빌립보 위, 드라고닛: 시리아 남부, 아빌레네; 다마스쿠스 동쪽 레바논 산 근처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음: 공식적으로는 대제사장이 한 명, 종신직, 타락한 후에는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몇 년 간의 임기가 있었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불리며 일정 부분 권위를 행사함,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는 그의 장인 (요18:13)

누가는 유명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로 초점
물론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 이들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뜻도 있다.

1. 하나님의 일에서 세상의 유명 인사들은 다 들러리다.
2.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3. 이 일을 위해 광야가 필요 하였다.
4.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다(메시아 대언).

요한의 사역

3절: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침례가 아니라 회개가 초점이다. 회개한 뒤에 상징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의식을 거함
이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물 침례가 아니다. 침례자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양임을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구약 성도이다. 그는 침례 성도의 조상이 아니다.
요한의 침례의 목적: 요1:31, 그의 사역은 오직 유대인들과만 상관이 있었다.

4절: 대언자 이사야의 예언(사40:3-5),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니 그분을 맞이하라.

그분이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며 이때에는 땅의 지형마저 변하게 된다.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임
그때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예수님이 곧 100% 하나님이다.

종교인들에 대한 정죄

7-8절: 종교인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부류, 침례자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독사들의 세대: 예수님도, 이들은 다 유대인으로 철저한 종교인

이들의 특징: 종교 규율, 열심, 가문, 직위, 전통 자랑,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열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마23:15)

하나님의 말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종교심을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킹제임스 성경, 근본주의, 세대주의, 독립 교회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면 파멸한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다(9). 주님을 모르는 자는 오늘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회개와 회개의 열매

파멸을 피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8)

회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것

이렇게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들어간다. 그분의 삶, 개, 돼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다 걸레 누더기, 개똥(개차반),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든다고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11절: 그 당시 유대 사회는 40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전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많았음
그러므로 진정을 회개하면 나보다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 친족을 배려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가난을 보면 구제해야 한다.

영적인 가난도 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 이들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만 배불리 먹고 지내면 안 된다.

이사야 대언자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물으실 때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해야 한다.

이런 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위한 희생이 커야 한다. 5월, 12월의 헌금

12-13절: 세리들,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거둬, 14절: 군사들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변한다는 말: 남편, 아내, 자식, 변해야 산다.

결론

크리스천 믿음의 기본: 회개와 믿음(행20:21)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행)가 있고 매일 일어나는 회개가 있다.

회개가 강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회개가 약하면 개인과 교회가 무너진다. 회개를 잘하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 옥토가 되어야 한다.

침례자 요한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며 자기를 준비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